

# 의대 · 부속병원 안암동 이전, 대규모 대학촌 조성 첫 걸음

##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13

### 녹지캠퍼스의 개발과 의과대학의 이전 1986~1991년

1980년대 후반의 고려대학교 캠퍼스 건축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항이 녹지캠퍼스 개발의 시작이었음은 지난 호에 이미 서술한 바다. 조금 더 자세히 그 상황을 돌아보자.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를 빙 둘러 이어주는 개운산 자락의 녹지캠퍼스는 원래 1960년대 말 처음 구상됐다. 그러나 여러 사정상 실현되지 못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1986년 '녹지캠퍼스 조성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실제 착수에 들어갈 수 있었다.

#### 1986년 녹지캠퍼스 조성계획 발표

이 계획안에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신축과 함께 강당겸용 체육관, 종합운동장, 노천극장의 조성이 포함됐고, 앞으로 신설할 예술계 대학(미술대학 및 음악대학) 건물도 제안되어 순차적으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밖에도 녹지캠퍼스 학생회관 및 도서관, 한옥 형태로 옷 입을 민족문화관, 학생기숙사 증축, 옥외 수영장, 외국인 교수나 외래객을 위한 영빈관 등도 그 항목에 있었다.

이로써 자체로는 녹지와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한 '전원풍'의 캠퍼스로 자리 잡고, 기존의 캠퍼스와 더불어는 22만 5천여 평의 대규모 '대학촌(University Town)'을 가꾼다는 포부가 천명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녹지캠퍼스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동아일보』(1986.2.27)가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인촌이 1930년대 후반 구입했던 8만여 평의 부지를 그의 아들 김상만 당시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이 기증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었다.

비록 미대와 음대로 구성된 예술대학을 신설해 녹지에 위치시킨다는 계획이(사범대학 미술교육과로부터 유래한 '디자인조형학부'가 현재 미디어관에 자리 잡아 존재하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여타의 몇 가지 항목도 당초의 구상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큰 관점에서 볼 때 녹지캠퍼스 개발은 여러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굳건하게 추진됐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듬해인 1987년 착공에 들어가 1991년 마무리된 1단계 공사가 그렇다. 종합운동장과 노천극장 등의 옥외시설을 제외한다면 의과대학



1991년 녹지캠퍼스 1단계 공사로 완공된 안암병원(정면 건물)과 의과대학(오른쪽 건물). 병원과 의대 건물 모두 기다란 매스로 인해 수평성이 강조됐다. 뒤로는 종합운동장 및 노천극장 등의 옥외시설이 보인다.

과 부속병원 등의 신축이 여기 해당된다. 바꿔 말해, 녹지캠퍼스 프로젝트에서 제일 핵심적이었던 것은 (1971년 우석대학으로부터 병합한 이래 명륜동에 있던) 의과대학의 안암동 이전을 위한 건축공사였다고 할 수 있다.

#### 병원과 교육 공간 유기적 체계 설정

이를 위해 실제 녹지캠퍼스에 설계된 건물군을 보자. 여기에는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뿐만 아니라 의학도서관도 포함된다. 이 건물군은 도로(현 인촌로)를 경계로 지금의 생명과학관 서관인 농과대학 맞은편에 자리 잡았고, 특히 내원객의 접근성을 위해 병원이 도로와 가장 가깝게 위치했다. 병원의 현관과 로비는 지상 2층에 배치됐는데, 남쪽의 도로에서 경사로를 따라 돌아 올라 가면 다다를 수 있다.

설계를 맡은 동현건축(김병용)도 주안점을 뒀듯(『건축문화』, 1991.10) 여기서는 경사지의 효율적 활용과 장래의 증축에 대한 고려, 그리고 병원 공간과 교육 공간의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체계 설정이 무척 중요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솟은 병원의 고층부는 넓게 퍼진 저층부와 달리 T-자형 평면을 갖는데, 남측으로 진입하는 내원객은 단지 넓은 면만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평면형은 북동편의 높은 대지에 인접한 L-자형의 5층 의과대학과 함께

삼면을 둘러싸며 중정(atrium)을 이룬다. 이 중정 북서쪽의 열린 면을 반쯤 막아주는 것이 바로 도서관 건물로서, 병원과 대학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급적 모든 공간은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폭이 넓은 병원의 저층부에는 자체의 중정을 별도로 뒀으로써 이 공간을 해결할 수 있었다. 병원과 의과대학에는 평면의 효율성을 위해 각각 6m×6m와 6m×3m의 모듈을 적용했고, 동선을 단축시키기 위해 각 단위 공간은 사용 시간대별로 구분되되 기능적으로 연결시켰다. 외적으로는 지붕에 솟은 여러 옥탑의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돼 조형적인데, 희미하게나마 모더니즘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지붕조형물을 연상시킨다.

#### 관련시설 신축, 메디컬복합체 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의대 건물 모두는 기다란 매스로 인해 수평성이 크게 강조됐다. 가로로 긴 창이 여기에 일조하며, 밝은 갈색과 청색(현재는 베이지색과 핑크색)의 외벽 색깔을 수평 띠처럼 번갈아 도장한 것 역시 이런 인상에 중요한 인자였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생각하면 병원과 의대 건물은 서구의 모더니즘을 일부 반영한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지난 호에 서술했듯 외벽을 거친 질감의 드라이비트로 마감함으로써 그러한 건축 경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됐으며, 또한 굳이 그 같은 역사를 떠올리기에



『동아일보』가 1986년 2월 27일자로 보도한 모교 녹지캠퍼스 마스터플랜 모형도.

는 시간과 공간의 격차 역시 작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의학도서관의 경우 외벽을 화강암 석판과 붉은 벽돌로 마감해 양쪽의 두 건물과 차별성을 부여했다.

처음 계획 당시 증축의 여지를 고려했듯, 녹지캠퍼스에는 의과대학이나 병원과 관련해 다양한 건물이 덧붙여지거나 신축됐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만도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여럿인데, 장례식장(2000), 교수연구동(2006), 행정지원센터(2006), 실험실(2006) 등이 그 예다. 그리고 기존의 의과대학 뒤편으로는 최근 새롭게 의과대학 본관(2009~12)과 문숙의학관(2013~14)이 완공돼 메디컬복합체를 향한 큰 도약을 이루고 있다. 물론 각종 기숙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들어선 아이스링크, 한국학관, 생명과학관(녹지), 학군단 등의 여타 목적 건축물들을 제외하고서 말이다.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



1991년 독립 건물로 세워진 의학도서관(왼쪽)과 의과대학 본관(2009~2012). 녹지캠퍼스는 조성 당시부터 주변 건물들의 신축 및 증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으며, 실제로 의대 및 병원 관련 다양한 건물이 덧붙여지거나 신축되고 있다.

